

에너지 브리프¹

2026년 2월

2025년 국내 에너지 소비

2025년 우리나라의 일차에너지 및 최종소비는 전년 대비 각각 1.8%, 1.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국가에너지수급 통계)되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에너지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특히 에너지 소비가 큰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논의로 에너지 소비 하락 폭이 컸다. 에너지원별로는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은 전년 대비 감소, 신재생은 증가, 전기 소비는 보합에 그쳤다. 부문별로는 건물용은 증가했으나, 산업과 수송용 에너지는 감소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으나, 국내 에너지 요금 변화는 용도별로 차이가 있었다. 난방도일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며 에너지 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냉방도일은 감소했으나 간헐적 이상 폭염 등으로 냉방용 에너지 소비는 증가했다.

김철현 선임연구위원(chkim@keei.re.kr)

에너지관련 주요 지표

2025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한 1.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년 대비 1.7% 상승했으나, 반도체가 속한 ICT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생산이 감소해 제조업 경기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석유화학과 철강 생산지수가 구조적 불황에 단기적 요인까지 겹치며 전년 대비 2.9%, 3.5% 하락했으나, ICT 생산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서비스업 가운데 에너지 소비가 큰 도소매업의 생산은 전년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으며, 숙박음식업의 생산은 2025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감소세는 완화되었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산유국의 공급 정책,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지속 하락하며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2.8% 하락한 배럴당 69.4달러를 기록했다. OPEC+가 4월부터 자발적 감산을 완화하고 단계적 증산에 나섰으며, 11월에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으로 유가 하방 압력이 지속되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분쟁 우려 및 중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석유 수요도 둔화되며 유가가 하락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천연가스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2024년 상반기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했다.

국제 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전년 대비 각각 2.1%, 3.4% 상승하며 수송용 에너지 소비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용이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LNG 도입 비용 하락으로 전년 대비 7.7% 하락했으나,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4.4%, 3.9% 상승하며 산업용과 건물용 에너지 소비에

¹ 에너지 브리프 이슈 내용은 주제와 관련한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다.

미치는 영향이 상이했다. 열에너지 요금은 전년 대비 5.0% 상승하며 에너지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전기 요금은 산업용은 상승했으나, 민수용은 전년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2025년 난방도일은 전년 대비 추운 겨울로 10.8% 증가했으며, 냉방도일은 2024년 역대 최악의 폭염에 대한 기저 효과로 6.7% 감소했다.

표 1 주요 지표 및 에너지 소비 동향

	2023	2024			2025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 및 주요지표							
국내총생산 (조원, 2020년 실질가격)	2 247.2	1 123.8	1 168.4	2 292.2	1 127.0	1 187.5	2 314.5
	(1.6)	(2.8)	(1.2)	(2.0)	(0.3)	(1.6)	(1.0)
제조업 생산지수(2020=100)	107.0	109.7	113.4	111.5	112.1	114.8	113.4
	(-2.5)	(5.5)	(3.0)	(4.2)	(2.2)	(1.2)	(1.7)
서비스업 생산지수(2020=100)	116.1	115.9	118.8	117.4	116.9	122.2	119.6
	(3.4)	(1.8)	(0.4)	(1.1)	(0.9)	(2.9)	(1.9)
국제유가 (Dubai, USD/배럴)	82.1	83.3	76.0	79.6	71.9	67.0	69.4
	(-14.8)	(5.3)	(-10.8)	(-3.0)	(-13.6)	(-11.8)	(-12.8)
천연가스(JKM, USD/MMBTU)	14.4	10.3	13.5	11.9	13.2	11.3	12.3
	(-57.3)	(-30.1)	(-5.1)	(-17.8)	(28.4)	(-15.8)	(3.3)
냉방도일(도일)	133.6	5.7	237.8	243.5	12.8	214.4	227.2
	(-5.8)	(119.2)	(81.5)	(82.3)	(124.6)	(-9.8)	(-6.7)
난방도일(도일)	2 347.8	1 402.7	813.2	2 215.9	1 614.8	841.4	2 456.2
	(-8.5)	(-3.8)	(-8.6)	(-5.6)	(15.1)	(3.5)	(10.8)
에너지 지표							
일차에너지 소비(백만 toe)	304.9	155.0	155.6	310.6	151.3	153.7	305.1
	(-1.6)	(2.3)	(1.4)	(1.8)	(-2.3)	(-1.2)	(-1.8)
최종소비(백만 toe)	208.5	107.8	104.6	212.3	106.1	103.7	209.9
	(-2.3)	(2.3)	(1.4)	(1.8)	(-1.5)	(-0.8)	(-1.2)
산업	126.5	65.2	65.5	130.7	63.6	64.1	127.8
	(-2.4)	(3.9)	(2.8)	(3.4)	(-2.5)	(-2.0)	(-2.3)
수송	35.3	17.5	17.5	35.0	16.4	17.6	34.1
	(-2.7)	(0.4)	(-2.4)	(-1.0)	(-6.1)	(0.9)	(-2.6)
건물	46.7	25.0	21.6	46.7	26.1	22.0	48.0
	(-1.9)	(-0.5)	(0.4)	(-0.1)	(4.1)	(1.6)	(3.0)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0.133	0.134	0.131	0.133	0.131	0.128	0.129
	(-3.4)	(-0.4)	(0.5)	(0.0)	(-2.8)	(-2.7)	(-2.8)

주: p는 잠정치, 괄호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에너지원단위는 일차에너지 공급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기상청, 통계청,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Group, KESIS(간이 에너지밸런스)

일차에너지 및 최종소비

2025년 국내 일차에너지 소비는 신재생·기타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에서 줄며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석탄은 4년 연속 감소했는데 감소 폭은 완화되었다. 2024년 증가했던 석유, 가스, 원자력은 2025년에는 감소로 전환했다. 신재생·기타는 2025년에도 전년 대비 6.8% 증가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2025년 일차에너지에서의 에너지원별 비중은 석유(38.3%), 석탄(22.1%), 가스(19.8%), 원자력(12.9%), 신재생·기타(6.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차에너지 공급 기준 에너지원단위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며 전년 대비 2.8% 개선(하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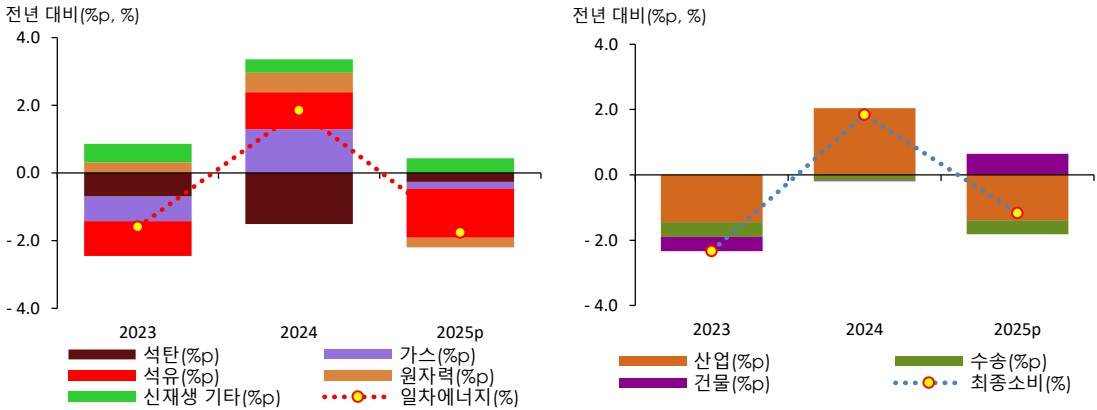
에너지 최종소비는 건물 부문에서 증가했으나 산업과 수송 부문에서 줄며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최종소비에서의 부문별 비중은 산업(60.9%), 건물(22.9%), 수송(1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의 업종별 비중은 석유화학(51.1%), 철강(20.0%), 기계류(8.6%), 비금속광물(3.4%), 수송장비(2.4%), 비철금속(1.5%)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기계류(1.3%)와 수송장비업(1.2%)에서 증가했으나, 석유화학(-1.8%), 철강(-2.3%), 비금속광물(-5.4%), 비철금속(-5.0%)에서 줄며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석유화학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국내 석유화학 경기의 구조적 불황에다 정부의 구조개편 추진 등으로 감소했다. 단, 석유화학에서의 가스 소비는 원료용 및 자가발전용 천연가스 소비가 증가하며 빠르게 증가했다. 국내 철강 경기도 구조적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철강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소세가 심화되었다. 철강 경기 침체로 2025년 조강 생산은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며, 주요 철강제품(봉형강류, 판재류, 강관류, 선재류 등) 생산도 모두 감소했다. 석유화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이러한 철강업의 구조적 침체에 대응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2025.11)'을 발표하고 구조 개편을 유도하고 있다. 2025년 생산이 호조를 보인 분야는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등이 속한 ICT였는데, 이에 따라 기계류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기계류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전기(한전으로부터의 수전량)인데, 기계류의 전기 소비는 천연가스 상용자가발전의 증가로 지속해서 감소해오고 있다. 반면 기계류에서의 가스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비금속광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석탄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국내항공에서 늘었으나, 도로, 국내해운, 철도에서 모두 줄며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수송의 대부분(96.8%)을 차지하는 도로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2024년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며 2025년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소세가 심화되었다. 이는 도로 휘발유 소비의 증가세가 전년 대비 둔화하고, 도로 경유 소비는 경기 둔화 등으로 감소세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수송용 전기 소비는 전기차용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도로 부문과 수송 전체에서의 전기 비중은 각각 1.0%, 1.7%에 도달했다.

건물(가정+상업+공공) 부문의 소비는 추운 겨울로 인해 난방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난방도일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며 주 난방용 에너지인 도시가스와 열에너지 소비가 전년 대비 각각 4.9%, 3.2% 증가했다. 반면, 연간 냉방도일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간헐적인 이상 폭염으로 주 냉방용 에너지인 건물용 전기의 소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가정, 상업, 공공용이 모두 증가했는데, 기온에 주로 영향을 받는 가정용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그림 1 일차에너지 에너지원별 기여도 및 최종소비 부문별 기여도



주: p는 잠정치, 일차에너지 증가율(%)=에너지원별 기여도(%p)의 합, 최종소비 증가율(%)=부문별 기여도(%p)의 합, 자료: KESIS(에너지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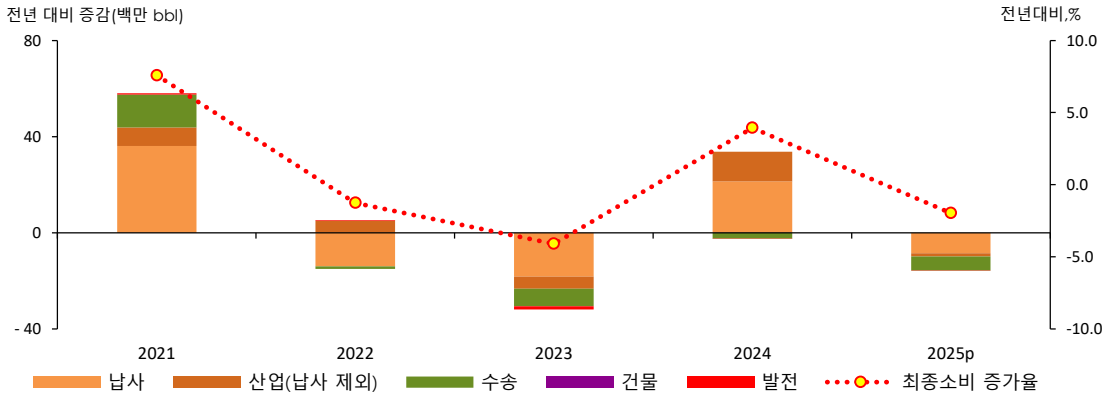
석유

석유 최종소비는 산업과 수송용은 감소하고 건물용은 보합 수준을 보이며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산업용 석유 소비는 석유화학 경기 악화로 석유화학에서의 소비가 줄며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국내 석유화학의 경기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공급 과잉, 중국·아세안·미국의 석유화학 설비 증가, 중국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 상승, 보호무역 강화 등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둔화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납사분해시설(NCC) 생산 능력의 18~25% 감축을 골자로 하는 석유화학 구조개편에 관한 자율협약(2025.8)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여수 산단 내 4개 석유화학사와 대산의 2개 사가 각각 257만 톤, 110만 톤 감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석유화학 석유 소비의 대부분(79.0%)을 차지하는 원료용 납사는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석유화학에서 원료용으로 쓰이는 석유제품은 납사와 LPG인데, 원료용 LPG 소비는 납사대비 가격 경쟁력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석유화학 전체 원료용 에너지(석유제품+천연가스)에서의 납사 비중은 보다 저렴한 납사 대체 원료(탈황중질유, 부생가스, LPG 등) 설비 증설 등으로 2021년 91%대 수준에서 지속 축소되며 2025년에는 85.7%로 낮아졌다. 반면 원료용 LPG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2025년에는 13.5%까지 높아졌다.

수송용 석유 소비는 휘발유, 항공유, LPG의 증가에도, 소비 비중이 가장 큰 경유의 감소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휘발유 소비는 교통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휘발유 소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예고될 때마다 저가 매수를 위한 주유소의 저장수요 발생으로 큰 폭으로 변동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20번째 연장되며 현재(2026년 2월)는 2026년 4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2023년 말에는 유류세가 37%까지 인하되었으나, 이후 인하 폭 지속 축소로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는 각각 7%, 10% 인하된 상황이다². 유류세 인하 축소 연장 예고로 4월과 7월에는 유통업체들의 선제적 물량 확보에 따른 저장수요가 증가하여 휘발유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5%, 27.1% 급증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유가 하락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으로 상승하여 수송용 석유 소비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항공유 소비는 9월 이후 국내선 운항편수가 증가하는 등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11월 이후로는 중국의 ‘한일령’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국내 여행객 유입이 늘며 항공유 소비가 급증했다. 경유 소비는 제조업 경기 부진에 따른 화물 물동량 정체, 2024년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경유차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LPG 소비는 경유차 규제 강화로 1톤 경유 트럭이 LPG 트럭으로 대체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²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20%(2021.11), 30%(2022.5), 37%(2022.7)로 확대되다, 2023년부터는 축소되기 시작함. 인하 폭 축소는 휘발유와 경유에 차이가 있었는데, 휘발유는 25%(2023.1), 20%(2024.7), 15%(2024.11), 10%(2025.5), 7%(2025.11)로, 경유는 30%(2024.7), 23%(2024.11), 15%(2025.5), 10%(2025.11)로 축소되어 옴

그림 2 석유 소비 증가율 및 부문별 소비 증감



주: p는 잠정치, 자료: KESIS(에너지통계월보)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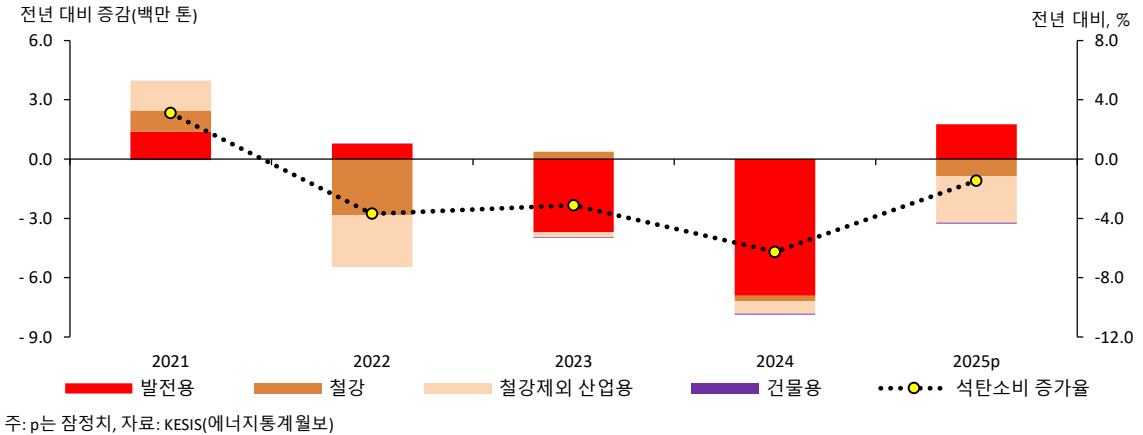
석탄 소비는 전년 대비 1.5% 감소하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감소 폭은 발전용의 반등으로 둔화되었다. 발전용 석탄 소비는 4월까지 급감했으나, 5월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연간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5월 이후 석탄 발전량과 발전용 석탄 소비가 증가로 전환된 이유는 원자력 발전 감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발전제약³ 완화 때문이었다. 원자력 발전은 5월 이후 경부하기 원전 출력감발과 예방정비 등으로 정지한 원전이 큰 폭으로 늘며 빠르게 감소했는데 이를 석탄 발전이 대체했다. 또한, 2025년 4월 북당진-신탄정 345kV 송전선로가 사업 착수 21년만에 완공되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송전선로 부족이 일부 완화된 점도 2025년 석탄 발전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일부 송전선로 확장으로 송전 가능한 (원자력+석탄+신재생·기타) 발전량이 전년 대비 3.9 TWh 증가한 상황에서, 신재생 발전이 늘었으나 원자력 발전은 줄며 2025년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3.6 TWh 증가했다.

발전용은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산업용 석탄 소비는 전년 대비 6.8% 줄어 감소세가 심화되었다. 산업용 석탄 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업에서의 소비는 철강 경기의 구조적 침체와 주요 제철소의 조업 차질 등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철강 경기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구조적 침체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 설비의 사고, 정기보수 및 직장 폐쇄 등도⁴ 철강에서의 2025년 석탄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화학에서의 석탄 소비는 석화 경기 악화 등으로, 시멘트업에서의 소비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0%, 17.4% 감소했다. 2025년에는 철강업에서의 소비 감소량 보다 나머지 업종에서의 감소량이 컸는데, 이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한 탄소 배출 감축 노력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SK케미컬의 자회사인 SK멀티유틸리티는 2025년 하반기에 석탄 사용 감축을 위해 자가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했다. 2025년 업종별 석탄 소비 비중은 철강(72.3%), 석유화학(11.7%), 시멘트(5.2%)를 기록했다.

³ 2022년부터 송전망 부족으로 송전 가능한 전체 원자력+석탄+신재생·기타 발전량은 거의 고정된 상태인데, 이에 따라 원자력과 신재생 발전의 증가는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석탄 발전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음

⁴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화재(2024.11), 현대제철 노조 파업(2025.2)에 따른 당진제철소 일부 라인 직장 폐쇄, 하계 대보수 기간 연장 등

그림 3 석탄 소비 증가율 및 용도별 소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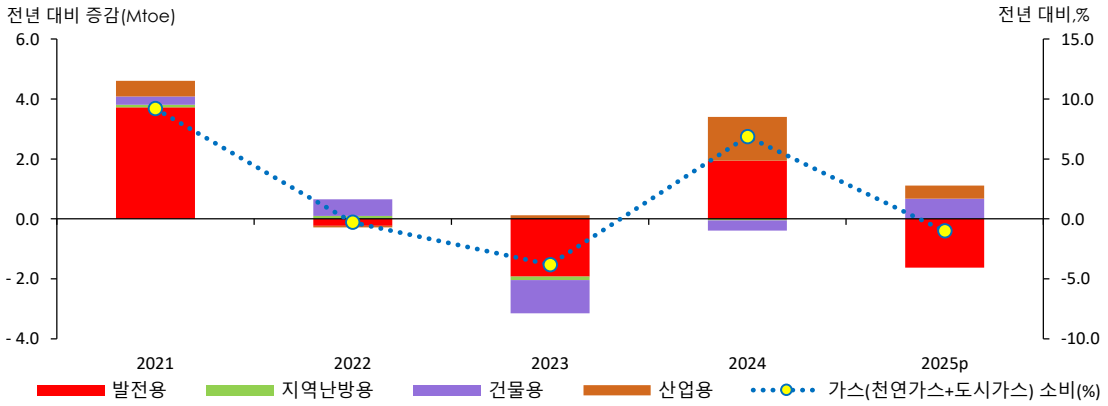
가스

가스(천연+도시) 소비는 산업용과 건물용에서 늘었으나 발전용이 줄며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산업용 가스 소비는 석유화학과 기계류에서의 소비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늘며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가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석유화학에서의 소비가 전년 대비 18.7% 증가하며 소비를 견인했다. 국내 석유화학 경기는 악화되었으나, 2024년 상반기 한주 열병합발전소, 2025년 하반기 SK머티리얼리티 열병합발전소에 따른 상용자가발전용 소비가 급증하고 수소 제조용으로 쓰이는 원료용 소비도 증가하며 석유화학에서의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 대비 80.2% 급증했다. 반면, 석유화학에서의 도시가스 소비는 석유화학 경기 침체를 반영하며 감소했다. 기계류에서의 가스 소비도 2024년 6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SK하이닉스 청주 열병합발전소의 영향 등에 따른 천연가스 소비 급증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반면, 2024년까지도 소비가 가장 많았던 철강에서는 구조적 철강 경기 침체와 설비 폐쇄, 사고 및 정기보수 등으로 천연가스와 도시가스 모두 줄며 가스 소비가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석유화학과 기계류에서의 가스 소비가 자가발전용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반면, 철강에서는 부진을 지속하며 철강업의 가스 소비 비중이 2025년에는 3위로 밀려났다. 전체 산업용 가스 소비에서의 2025년 업종별 비중은 석유화학(23.0%), 기계류(22.5%), 철강(20.0%) 순을 기록했다. 한편, 산업용 천연가스 소비가 자가발전용 직수입 물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온 반면, 도시가스 소비는 산업 생산활동 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며 천연가스의 비중도 빠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체 산업용 가스 소비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1.4%에서 2025년 40.6%로 3년만에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건물용 가스 소비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온 효과로 가정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2022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한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4년 8월과 2025년 7월의 인상으로 2025년에도 전년 대비 4% 내외(주택용 4.4%, 일반용 3.9%)로 상승했다. 2025년 난방도일은 전년 대비 10.8% 증가했는데, 특히 4~5월 꽃샘추위, 11월 이른 추위 등 예상을 벗어난 이상 기온 발생으로 난방 수요가 급증했다. 가정용과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 대비 각각 6.2%, 1.4% 증가했는데, 기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용 소비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컸다.

발전용 가스 소비는 가스 발전이 담당하는 첨두 부하량이 축소되며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총 발전량이 정체(594.7TWh, -0.2%)한 가운데, 기저(원자력+석탄)+신재생·기타 발전량(431.1TWh)이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준공 등으로 전년 대비 3.9TWh(0.9%) 증가하며 첨두 부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림 4 가스 소비 증가율 및 용도별 소비 증감



주: p는 잠정치, 자료: KESIS(에너지통계월보)

원자력 및 신재생 발전

2025년 원자력 발전은 4월까지 전년 신한울 2호기 신규 진입(2024.4.5) 효과로 빠르게 증가하다, 5월부터는 예방정비 급증 등으로 감소하여 연간으로도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하반기 들어 다수의 원전이 예방정비에 착수하면서 예방정비량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이에 따라 3월까지 92% 수준을 기록했던 원자력 발전 설비 이용률도 하락해 7월에는 80%, 11월에는 70%를 하회했다. 2025년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5%p 정도 하락한 81% 수준을 기록했다.⁵ 고리2~3호기는 각각 2023년 4월과 2024년 9월에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을 위한 정비를 연중 지속했으며, 고리4호기와 한빛1호기도 2025년 8월과 12월에 설계수명 만료 후 정비에 진입하며 2025년 원전의 예방정비량 증가에 기여했다. 한편, 수도권 송전선로 부족에 따른 발전계약 등으로 원자력 발전도 봄철 경부하기 및 주말에 출력감발을 실시하며 원자력 발전의 증가가 제한되었다. 2025년 4월에는 서해안 송전선로 완공으로 송전선로 부족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이후 정비를 위해 정지한 원전이 크게 늘며 원자력 발전량은 감소했다.

신재생 발전량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서 모두 증가하며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신에너지 발전량은 석탄가스복합화력(IGCC)이 예방정비 및 화재 사고 발생 등으로 줄었으나, 연료전지 발전이 설비용량 확대 등으로 증가하며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은 설비용량이 전년 대비 3.7GW(13.5%) 확대되며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풍력 발전도 설비용량 증가(0.2GW) 등으로 증가했으나, 바이오와 수력 발전은 감소했다. 바이오 발전은 정부가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2024.12.18)에서 수입 목재펠릿 및 목재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조(REC)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⁶

2025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과 신재생 발전은 늘고, 원자력, 가스 발전은 감소하며 원자력(31.1%), 석탄(28.7%), 가스(27.3%), 신재생·기타(12.7%), 석유(0.2%) 순을 기록했다. 가스 발전은 2024년에는 석탄 발전 비중을 초과해 원자력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2025년에는 3위로 밀려났다. 원자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증가로 무탄소 전원(원자력+ 바이오 제외 재생에너지+양수)의 발전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0.2%p) 상승한 43.8%를 기록했다. 한편, 기저(원자력+석탄)+신재생·기타 발전량은 송전선로 부족이 일부 완화되며 전년 대비 0.9% 증가해 431.1 TWh 수준에 도달했다.

⁵ 월 설비용량의 연평균 값임

⁶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는 REC를 부여하지 않고, 기존 상업운전 설비에 대해서도 REC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함.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바이오매스 발전 업계가 반발하며 관련 고시 제정이 지연되다, 2025년 10월 REC 가중치를 현행수준으로 조건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확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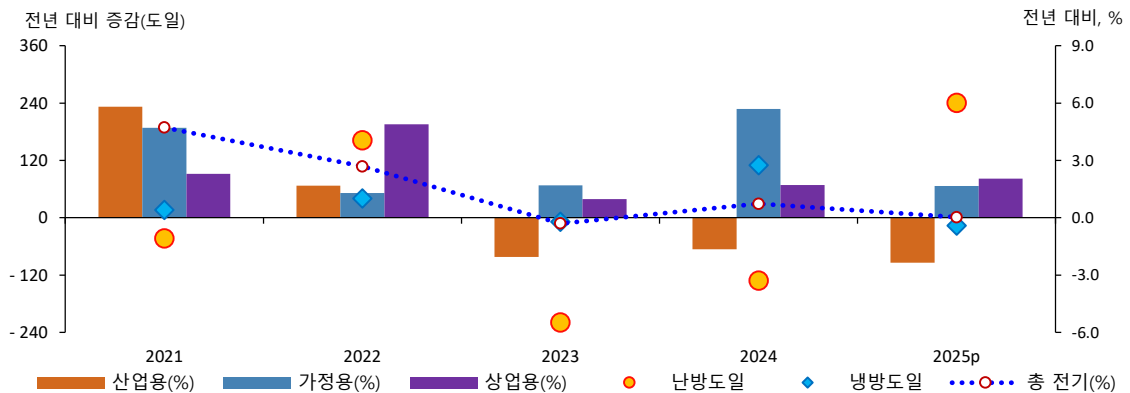
전기

전기 소비는 산업용 소비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기은 효과에 따른 건물용 소비의 증가로 전년 수준을 유지(0.0%) 했다. 산업용 전기는 주요 업종에서 소비가 모두 줄며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업종인 기계류의 생산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민간 기업의 신규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자가발전이 늘어 한전으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량인 전기 소비는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기계류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석유화학에서의 전기 소비는 석유화학 경기의 불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중 감소세를 지속하며 4.7% 감소했다.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정기보수는 늘며 산업 활동이 축소되었다. 또한, 기계류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업체의 열병합 상용자가발전소 가동도 석유화학 전기 소비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송장비에서의 전기 소비는 자동차 생산이 대외 통상 압력과 국내의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 수준을 소폭 밑돌면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철강에서의 전기 소비도 국내 건설경기 침체, 대외 통상 압력, 상용자가발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5월에는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결정 등으로 국내 판재류 생산이 늘며 전기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으나, 미국 관세 및 EU의 셰이프가드 강화,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철강에서의 산업 생산과 전기 소비는 지속 감소했다. 2025년 산업용 전기에서의 업종별 비중은 기계류(34.5%), 석유화학(20.0%), 수송장비(9.2%), 철강(8.0%), 비철금속(3.3%) 순을 기록했다.

건물용 전기 소비는 가정용과 상업·공공용에서 모두 증가하며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가정용은 이상 폭염과 한파 등으로 월간으로 크게 변동하며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2025년 냉방도일은 전년 대비 6.7% 감소했으나, 7월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급증하기도 했다. 9월에는 냉방도일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기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하는 등 기온에 따른 소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난방용에서도 전기화 추세가 지속되며 12월에는 가정용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전기화율)이 처음으로 19%를 상회했다. 산업용 전기 소비는 도소매 업종 등에서의 생산 증가로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완만하게 증가(1.9%)하며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산업용의 부진 대비 건물용의 증가로 2025년에는 국가 전체 전기 소비에서의 건물용의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상회했다. 2025년 부문별 전기 소비 비중은 건물(50.7%), 산업(34.5%), 수송(1.3%)를 기록했다. 수송용 전기 소비는 급증세가 지속 완화되어 왔으나,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2025년에도 30%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림 5 부문별 전기 소비 증가율 및 냉난방도일 증감



주: p는 잠정치, 자료: 기상청, KESIS(에너지통계월보)

7 에너지밸런스에서 전기 소비량은 한전으로부터의 수전량임

참고문헌

CME Group. "Natural Gas Futures - Settlements."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Monthly prices."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기후통계."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시스템(KESIS). "에너지수급통계(간이 에너지밸런스).",

<https://kesis.keei.re.kr/stat/statsList.es?mid=a10101000000&vwCd=zt>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한국석유공사. "국제석유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통계."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각월호

1. 국제 에너지 가격

국제 에너지 시장

□ 1월 국제 유가는 0.1%, 연료탄은 전월 대비 0.3% 하락, JKM은 전월 대비 1.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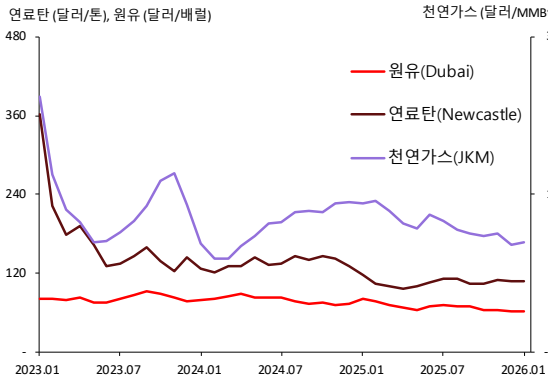
- 1월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 요인과 미국 원유 생산 감소의 영향이 맞물려 전월 대비 보합세
 -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인한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 확대 가능성은 국제 유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 1월 말 미국 전역을 덮친 북극 한파로 인한 원유 생산 설비 가동 중단은 국제 유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 ※ 1월 24일 기준 미국 일평균 원유 생산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200만 b/d의 공급이 중단됨
- 국제 연료탄 가격은 발전용 대체재인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 하락
- 국제 가스 가격의 경우 JKM, TTF는 전월 대비 각각 1.9%, 24.5% 상승, Henry Hub는 2.9% 하락
 - 유럽 전역을 덮친 1월 북극 한파로 인한 난방수요 폭증과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정비로 인한 LNG 수출량 감소로 인해 TTF는 전월 대비 24.5% 상승
 - 2025년 1분기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LNG 수출 증가로 인해 동북아 가격 지표 JKM과 유럽 가격 지표인 TTF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각각 19.5%, 26.3% 하락

국제 에너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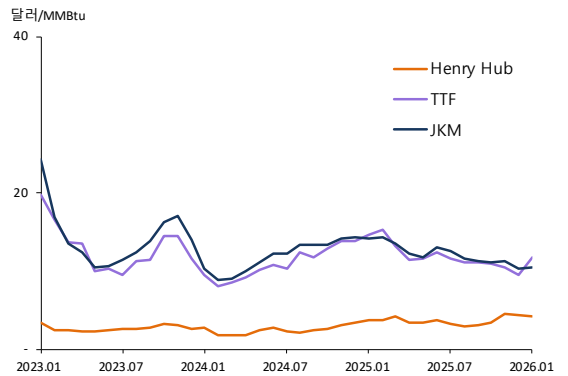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원유 (달러/배럴)	96.4 (39.1)	82.1 (-14.8)	79.6 (-3.0)	69.4 (-2.1)	70.0 (0.9)	65.0 (-7.2)	64.5 (-0.8)	62.1 (-3.8)	62.0 (-0.1)
연료탄 (달러/톤)	357.1 (161.8)	174.7 (-51.1)	135.6 (-22.3)	112.2 (0.8)	104.5 (-6.8)	104.4 (-0.1)	110.4 (5.8)	108.6 (-1.6)	108.3 (-0.3)
천연가스 (달러/MMBtu)									
Henry Hub	6.5 (75.3)	2.7 (-59.1)	2.4 (-9.4)	2.9 (-12.5)	3.0 (4.2)	3.4 (11.4)	4.5 (33.2)	4.4 (-1.6)	4.3 (-2.9)
TTF	40.2 (149.6)	13.0 (-67.6)	11.0 (-15.9)	11.1 (-4.5)	11.1 (-0.0)	10.9 (-2.2)	10.4 (-4.4)	9.5 (-8.8)	11.8 (24.5)
JKM	33.9 (89.1)	14.4 (-57.4)	11.9 (-17.7)	11.6 (-7.2)	11.3 (-2.7)	11.1 (-1.8)	11.2 (1.2)	10.2 (-9.0)	10.4 (1.9)

주: 원유는 두바이유, 연료탄은 호주 뉴캐슬 연료탄 기준. 석탄과 천연가스는 선물 가격.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Group

국제 에너지 가격



국제 천연가스 가격



국내 에너지 수입 가격

□ 12월 원유, 석탄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각각 1.7%, 0.4% 하락, LNG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2.6% 상승

- 12월 원유 수입 단가는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국의 원유 생산량 확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여 전월 대비 1.7% 하락
 - 11월 말 배럴당 64.50달러를 기록했던 국제 유가(두바이유)는 12월 중순 우크라이나 회동 이후 배럴 당 59.70달러까지 하락하며 12월 원유 수입 단가 하락에 영향을 줌
 - 11월 미국 원유 주간 생산량은 일평균 약 1,387만 배럴로 미국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석탄 수입 단가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무연탄 수입 비중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소폭 하락
- LNG 수입 가격은 11월 미국-일본 노선 LNG 운임 지수 폭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6% 상승
 - 2025년 초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LNG 수출량 증가로 인해 LNG 수입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2% 하락
- 12월 프로판 수입 가격은 전월 대비 6.0% 상승, 부탄 수입 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전월 대비 사우디 아람코 프로판 계약 가격이 4.2% 상승한 영향을 받음
 - 2025년 OPEC+의 증산과 미국의 원유 생산 확대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인해 프로판과 부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각각 22.0%, 23.0%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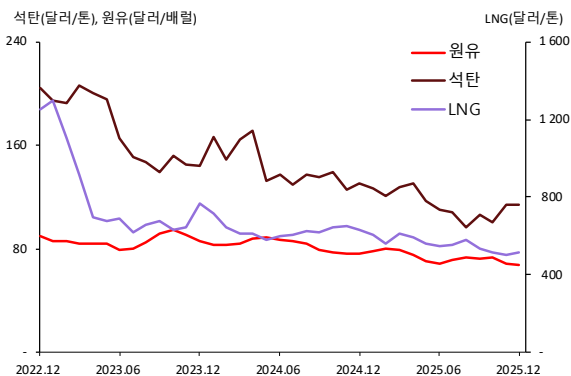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유 (달러/배럴)	102.3 (45.5)	85.9 (-16.1)	82.8 (-3.6)	71.4 (4.0)	73.2 (2.6)	72.8 (-0.6)	73.3 (0.8)	68.8 (-6.1)	67.6 (-1.7)
석탄 (달러/톤)	225.6 (95.4)	168.7 (-25.2)	142.3 (-15.7)	108.2 (-3.2)	96.2 (-11.1)	105.7 (9.9)	100.7 (-4.8)	113.5 (12.8)	113.0 (-0.4)
LNG (달러/톤)	1 055.3 (91.6)	780.5 (-26.0)	628.4 (-19.5)	551.6 (1.1)	579.6 (5.1)	533.3 (-8.0)	514.1 (-3.6)	499.4 (-2.9)	512.2 (2.6)
프로판 (달러/톤)	756.3 (15.4)	626.4 (-17.2)	621.0 (-0.9)	546.0 (2.8)	520.9 (-4.6)	521.2 (0.0)	529.0 (1.5)	495.2 (-6.4)	525.2 (6.0)
부탄 (달러/톤)	756.9 (21.3)	615.6 (-18.7)	628.5 (2.1)	532.6 (1.7)	535.9 (0.6)	536.9 (0.2)	551.2 (2.7)	516.7 (-6.3)	516.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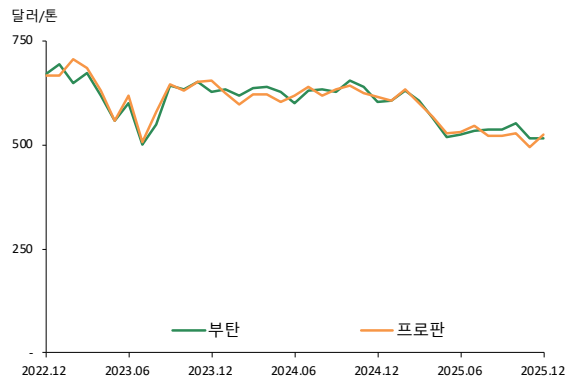
주: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한국무역협회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



국내 LPG 수입 단가



2. 국내 에너지 가격

석유제품 가격

□ 1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2.1%, 3.1%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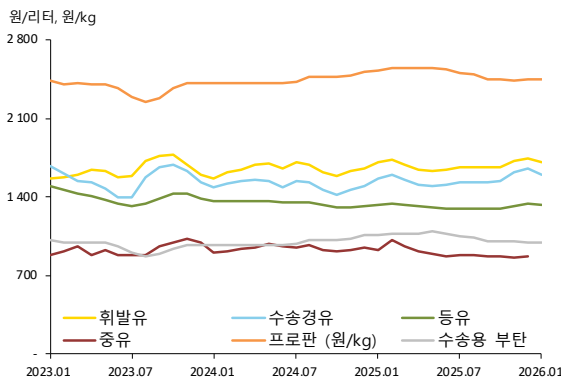
- 2025년 12월 싱가포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배럴당 75.8 달러, 82.4 달러로 전월 대비 각각 5.2%, 12.0% 하락
 - 원화로 환산 시 2025년 12월 싱가포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712.5원, 759.4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4.8%, 11.6% 하락하여 고환율의 영향을 반영
 - ※ 2025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67.4원으로 2025년 월평균 최고치를 기록
- 1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는 리터 당 763원, 523원 수준이며, 유류세 인하는 4월까지 연장 시행
- LPG 가격은 SK가스와 E1 등의 LPG 공급사가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사우디 아람코 LPG 계약 가격과 환율이 전월 대비 상승하여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동절기 소비자 연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격 동결
- 산업용 프로판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상대가격(프로판/도시가스)은 1.33으로 전월 대비 2.4% 하락
 - 산업용 프로판 가격은 보험세이나 도시가스 요금은 전월 대비 2.5% 상승하여 상대가격이 소폭 하락

국내 석유제품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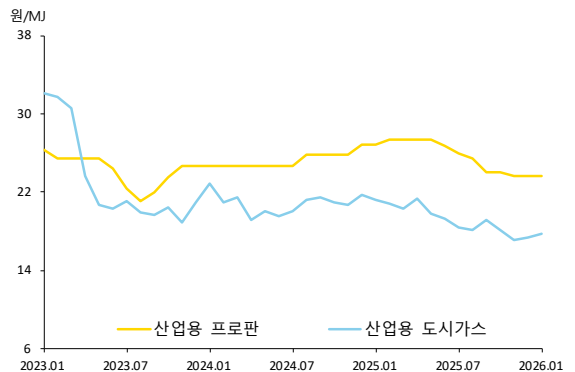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휘발유 (원/리터)	1 812.7 (13.9)	1 643.3 (-9.3)	1 646.8 (0.2)	1 665.9 (-0.1)	1 659.9 (-0.4)	1 663.2 (0.2)	1 718.1 (3.3)	1 740.2 (1.3)	1 704.4 (-2.1)
수송용 경유 (원/리터)	1 843.4 (32.4)	1 558.4 (-15.5)	1 502.6 (-3.6)	1 535.7 (0.3)	1 530.7 (-0.3)	1 536.8 (0.4)	1 619.1 (5.4)	1 650.5 (1.9)	1 600.1 (-3.1)
등유 (원/리터)	1 487.4 (57.1)	1 399.5 (-5.9)	1 344.7 (-3.9)	1 293.2 (-0.2)	1 291.9 (-0.1)	1 295.1 (0.3)	1 316.0 (1.6)	1 334.3 (1.4)	1 323.2 (-0.8)
중유 (원/리터)	1 116.1 (52.4)	931.5 (-16.5)	938.5 (0.8)	877.8 (-0.9)	864.4 (-1.5)	871.2 (0.8)	855.3 (-1.8)	873.2 (2.1)	- -
프로판 (원/kg)	2 480.1 (18.5)	2 372.0 (-4.4)	2 446.2 (3.1)	2 492.0 (-0.6)	2 444.3 (-1.9)	2 445.6 (0.1)	2 442.6 (-0.1)	2 445.0 (0.1)	2 447.3 (0.1)
수송용 부탄 (원/리터)	1 081.8 (16.0)	957.4 (-11.5)	995.3 (4.0)	1 037.5 (-1.5)	1 000.6 (-3.6)	999.1 (-0.1)	998.3 (-0.1)	998.1 (-0.0)	998.2 (0.0)

주: 휘발유, 경유, 부탄은 주유소/충전소 가격, 등유는 실내등유 가격, 중유는 대리점 가격, 프로판은 판매소 가격.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국내 석유제품 가격



산업용 프로판 도시가스 가격 비교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

□ 1월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업무난방용과 산업용은 전월 대비 상승

- 주택용과 일반용의 도매요금의 경우 2024년 7월 인상 이후 변화가 없으며, 소매요금은 2025년 7월 인상 결정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
 - ※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서울도시가스 요금표를 기준으로 함
-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가 전월 대비 0.4원/Mcal 상승한 15.3원/Mcal로 조정되어 전월 대비 각각 2.1%, 2.5% 상승
 - ※ 원료비는 소매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2개월(각 홀수월에 산정), 상업용(업무난방용, 산업용 등) 원료비는 1개월 주기로 산정. 공급비용은 총괄원가에서 원료비를 제외한 원가로서 1년에 1회(도매 5월, 소매 7월) 조정

□ 지역난방 열요금은 2024년 7월에 2023년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요인 반영으로 10.6% 인상된 후 줄곧 동결

- 열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작년 7월 인상 이후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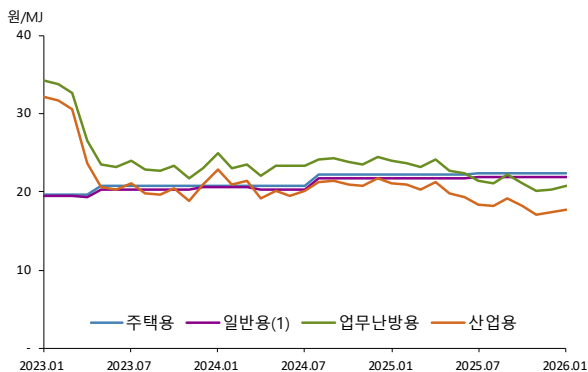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도시가스 (원/MJ)									
주택용	16.6 (16.8)	20.4 (22.8)	21.4 (4.9)	22.4 -	22.4 -	22.4 -	22.4 -	22.4 -	22.4 -
일반용(1)	16.3 (17.4)	20.1 (23.2)	21.0 (4.6)	21.9 -	21.9 -	21.9 -	21.9 -	21.9 -	21.9 -
업무난방용	28.7 (66.6)	26.0 (-9.5)	23.6 (-8.9)	21.2 (-1.0)	22.1 (4.7)	21.2 (-4.4)	20.1 (-5.2)	20.3 (1.3)	20.8 (2.1)
산업용	25.9 (79.9)	23.3 (-10.1)	20.9 (-10.5)	18.2 (-1.2)	19.1 (5.5)	18.2 (-5.1)	17.1 (-6.0)	17.3 (1.5)	17.7 (2.5)
열에너지 (원/Mcal)									
주택용	74.2 (13.8)	96.1 (29.5)	107.0 (11.3)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업무용	96.4 (13.8)	124.8 (29.5)	138.9 (11.3)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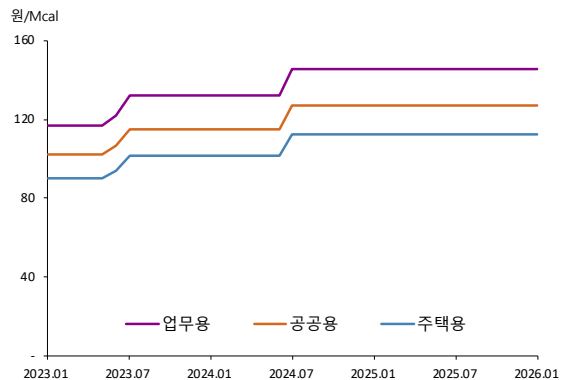
주: 월별 가격은 월말 가격을 기준으로 함. 열 요금은 난방용 단일요금 기준(부가세, 기본요금 제외)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서울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요금



열에너지 요금



전기 요금 및 연료비 단가

□ 1월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모두 전월 수준을 유지

- 주택용 전력량 요금, 일반용 겨울철 전력량요금은 2023년 5월 요금 조정 이후 변화가 없으며, 산업용 겨울철 전력량 요금도 2024년 10월 요금 조정 이후 동일 수준 유지
- 2026년 1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kWh당 -13.3원으로 산정되어 인하되어야 했으나,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고려하여 2025년 4분기와 동일한 5.0원을 적용하기로 결정
- 기후환경요금도 2023년 1월 인상 이후 kWh당 9.0원을 유지함에 따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반영한 주택용, 일반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1월 LNG, 유연탄, 원자력 발전 연료비 단가는 각각 6.9%, 7.2%, 0.1% 상승

- LNG와 유연탄의 발전 연료비 상대 단가(LNG/유연탄)는 1.66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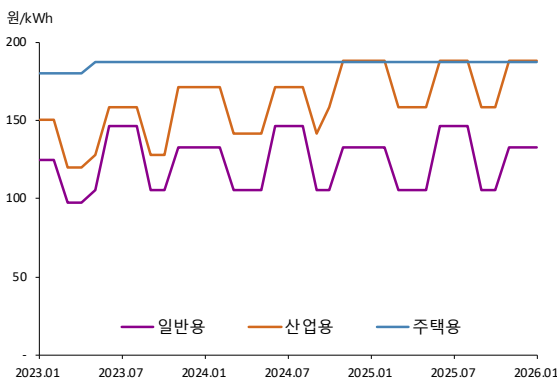
전기요금 및 발전 연료비 단가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기요금 (원/kWh)										
주택용	157.2 (8.1)	185.4 (17.9)	188.0 (1.4)	188.0	188.0	188.0	188.0	188.0	188.0	188.0
일반용	94.2 (14.4)	122.4 (29.9)	125.0 (2.2)	146.4	105.9 (-27.7)	105.9	133.0 (25.6)	133.0	133.0	133.0
산업용	108.1 (15.1)	145.5 (34.5)	163.6 (12.5)	188.8	158.8 (-15.9)	158.8	188.8 (18.9)	188.8	188.8	188.8
발전 연료비단가 (원/kWh)										
LNG	204.6 (113.9)	179.6 (-12.3)	141.1 (-21.4)	118.0 (-2.4)	120.6 (2.2)	115.5 (-4.2)	110.1 (-4.7)	110.1 (0.0)	117.7 (6.9)	117.7
유연탄	110.4 (96.3)	101.0 (-8.5)	76.3 (-24.5)	70.9 (-4.2)	66.9 (-5.6)	65.1 (-2.7)	65.9 (1.2)	66.0 (0.2)	70.7 (7.2)	70.7
원자력	6.36 (2.5)	6.37 (0.2)	6.41 (0.6)	6.40 (0.2)	6.40 (0.1)	6.42 (0.2)	6.42 (0.1)	6.43 (0.1)	6.43 (0.1)	6.4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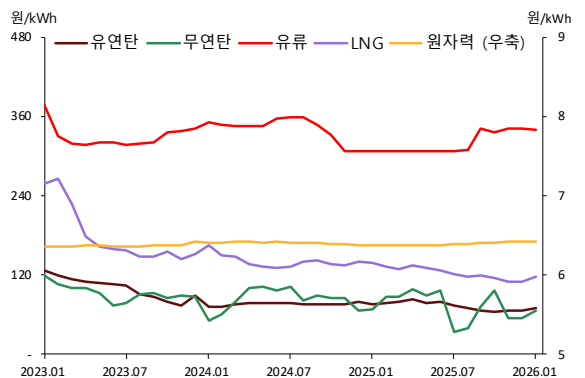
주: 전기 요금은 주택용(고압), 2구간 전력량 요금, 일반용(갑, 저압), 산업용(을, 고압 B 중간부하)을 사용하며 월말 가격을 기준으로 함.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계약종별 전기 요금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



SMP 및 REC 가격

□ 1월 계통한계가격(SMP)은 전월 대비 14.5% 상승⁸

- 전국과 육지 SMP는 14.5% 하락한 103.5원/kWh이며 제주는 13.1% 상승한 102.9원/kWh임

※ 계통한계가격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이며,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투입되는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산정

□ 1월 REC 현물 가격은 7.17만원/REC로 전월 대비 0.9% 하락

- REC 거래량은 158.1만 REC로 전월 대비 17.6% 하락, 거래대금은 1133.1억 원으로 전월 대비 18.3% 하락
- 2026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은 15.0%로 전년 대비 1.0%p 상승
 - 2025년 REC 발급량은 8,740만 REC로 2024년 RPS 의무공급량 대비 2.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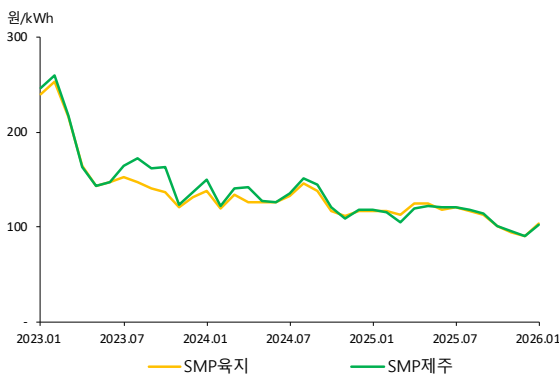
SMP 및 REC 가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SMP(통합) (원/kWh)	196.7 (109.2)	167.1 (-15.6)	129.5 (-22.9)	117.4 (-2.5)	112.9 (-3.8)	101.5 (-10.1)	94.8 (-6.6)	90.4 (-4.6)	103.5 (14.5)
육지	196.0 (109.3)	167.0 (-15.4)	129.4 (-22.9)	117.4 (-2.5)	112.9 (-3.8)	101.5 (-10.1)	94.8 (-6.6)	90.4 (-4.6)	103.5 (14.5)
제주	252.2 (97.2)	176.9 (-30.3)	134.9 (-24.3)	118.5 (-2.2)	114.1 (-3.7)	101.2 (-11.3)	95.8 (-5.3)	91.0 (-5.0)	102.9 (13.1)
SMP 결정 비중 (%)									
LNG	87.0	82.5	93.3	90.1	69.7	70.6	74.0	61.7	-
유연탄	11.5	14.9	6.1	9.9	28.5	28.6	0.6	38.0	-
유류	1.4	2.4	0.1	0.0	0.3	0.3	0.0	0.0	-
REC 현물가격 (천원/REC)	56.9 (64.3)	72.8 (27.9)	76.2 (4.6)	71.9 (0.3)	72.0 (0.2)	72.3 (0.5)	72.1 (-0.2)	72.3 (0.2)	71.7 (-0.9)
REC 거래량 (만 REC)	1 374.3 (34.9)	1 446.1 (5.2)	1 372.1 (-5.1)	175.0 (-11.5)	213.9 (22.2)	164.7 (-23.0)	165.2 (0.3)	191.8 (16.1)	158.1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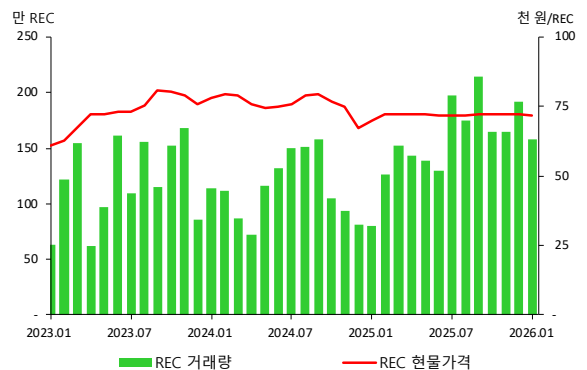
주: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전력거래소

SMP 가격



REC 현물가격 및 거래량



⁸ 당일 호를 작성하는 시점에 1월 SMP 결정 비율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연료비 단가 변화 외에 추가적 요인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

3. 일차에너지소비 및 최종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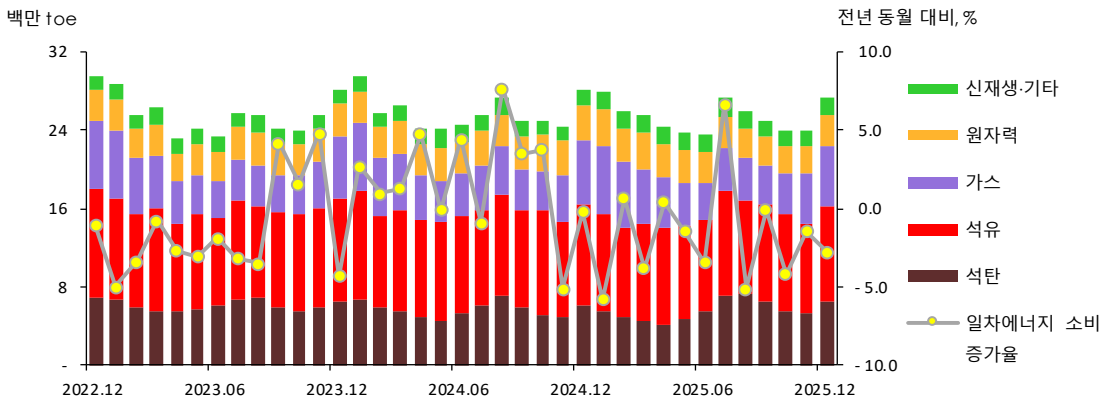
□ 12월 일차에너지 소비는 석탄, 신재생·기타 증가에도 석유, 가스, 원자력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

- 석탄 소비는 산업용이 줄었으나 발전용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 산업용은 철강에서 정체된 가운데 나머지 업종에서 줄며 감소세 심화, 발전용은 원전 감소분을 대체하며 증가
- 가스 소비는 산업용의 증가에도 건물용과 발전용의 감소로 7.7% 감소. 산업용은 기계류의 감소에도 석유화학 등의 증가로 6.9% 증가. 발전용은 기저+신재생·기타 발전량 증가로 침투 발전인 가스 감소
- 석유 소비는 산업용이 석유화학업 산업 활동 축소로 감소하고, 수송용은 경유 소비 감소에도 여객 수요 증가에 따른 휘발유, 항공유, LPG 소비 확대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
- 원자력 발전은 예방정비량 증가에 따른 이용률 하락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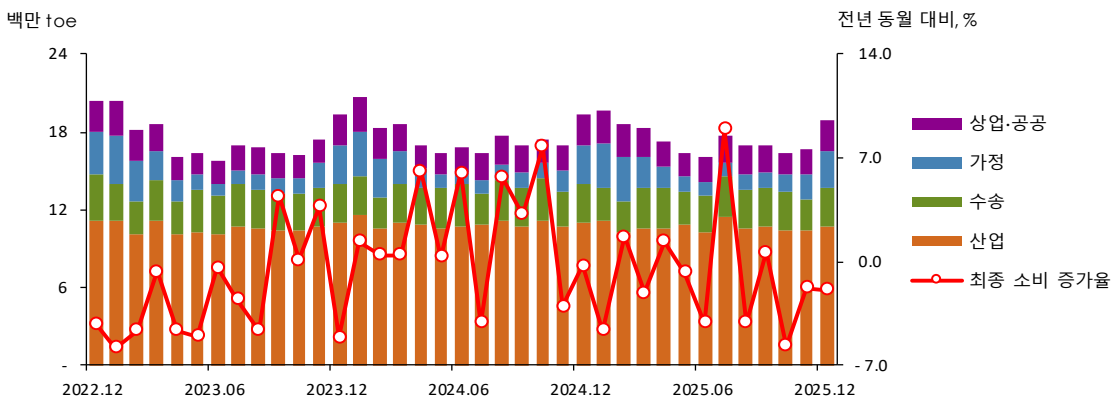
□ 에너지 최종 소비는 수송 부문에서 증가했으나, 산업과 가정에서 줄어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

- 산업 부문 소비는 근무일수 1일 증가에도 제조업 경기 부진, 석유화학 경기 침체 등으로 3.6% 감소
- 수송 부문 소비는 경유 수요 감소에도 도로와 항공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
- 건물 부문 소비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도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
- 에너지원별 최종 소비는 가스와 신재생·기타는 증가, 석탄, 석유, 전기, 열은 감소

일차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최종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부록> 에너지 가격 및 수급 통계

국제 에너지 가격

	2024년			2025년			2026년			
	10월	11월	12월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원유 (달러/배럴)										
WTI	75.7 (-2.4)	71.6 (3.2)	69.5 (-2.8)	69.7 (0.2)	75.1 (7.7)	64.8 (-14.4)	60.1 (-5.5)	59.5 (-1.0)	57.9 (-2.7)	60.3 (4.1)
Dubai	79.6 (-3.0)	74.9 (1.9)	72.6 (-3.1)	73.2 (0.9)	80.4 (9.8)	69.4 (-12.8)	65.0 (-7.2)	64.5 (-0.8)	62.1 (-3.8)	62.0 (-0.1)
Brent	79.8 (-2.9)	75.4 (3.4)	73.4 (-2.6)	73.1 (-0.4)	78.3 (7.1)	68.2 (-14.5)	64.0 (-5.4)	63.7 (-0.5)	61.6 (-3.2)	64.7 (5.0)
수입단가 (CIF)	82.8 (-3.6)	77.5 (-2.5)	76.6 (-1.1)	76.2 (-0.5)	78.4 (2.9)	73.3 (-11.4)	73.3 (0.8)	68.8 (-6.1)	67.6 (-1.7)	-
천연가스 (달러/MMBtu)										
일본 수입 가격	12.8 (-10.7)	12.5 (-3.3)	12.8 (2.2)	12.6 (-1.4)	13.2 (4.4)	12.1 (-5.9)	11.1 (-3.2)	11.0 (-0.8)	-	-
Henry Hub	2.4 (-9.4)	2.6 (7.0)	3.0 (15.7)	3.4 (14.2)	3.7 (9.2)	3.6 (50.4)	3.4 (11.4)	4.5 (33.2)	4.4 (-1.6)	4.3 (-2.9)
NBP	10.8 (-14.3)	13.2 (14.7)	14.3 (8.9)	14.2 (-0.7)	15.0 (5.4)	11.8 (8.6)	10.8 (0.2)	10.6 (-2.3)	9.7 (-7.8)	12.4 (26.9)
TTF	10.9 (-16.1)	12.9 (9.7)	13.9 (7.8)	13.8 (-0.5)	14.7 (6.1)	11.9 (9.1)	10.9 (-2.2)	10.4 (-4.4)	9.5 (-8.8)	11.8 (24.5)
JKM	11.9 (-17.8)	13.3 (-0.5)	14.1 (5.8)	14.3 (1.6)	14.2 (-1.3)	12.3 (3.3)	11.1 (-1.8)	11.2 (1.2)	10.2 (-9.0)	10.4 (1.9)
수입단가 (달러/톤, CIF)	628.4 (-19.6)	646.2 (4.6)	648.3 (0.3)	633.9 (-2.2)	606.6 (-4.3)	555.2 (-11.6)	514.1 (-3.6)	499.4 (-2.9)	512.2 (2.6)	-
석탄 (달러/톤)										
호주 뉴캐슬 연료탄	135.6 (-22.4)	145.4 (3.8)	141.8 (-2.4)	130.1 (-8.3)	116.8 (-10.2)	106.3 (-21.6)	104.4 (-0.1)	110.4 (5.8)	108.6 (-1.6)	108.3 (-0.3)
수입단가 (CIF)	143.2 (-15.6)	139.2 (2.7)	125.9 (-9.6)	130.2 (3.4)	126.5 (-2.8)	114.4 (-20.1)	100.8 (-5.2)	113.9 (13.0)	113.7 (-0.2)	-
석유제품 (달러/배럴)										
휘발유	93.0 (-5.8)	85.9 (3.7)	84.5 (-1.7)	84.6 (0.2)	86.7 (2.5)	80.8 (-13.2)	79.7 (-2.2)	81.5 (2.2)	77.3 (-5.2)	73.0 (-5.6)
경유	96.3 (-9.6)	87.9 (4.3)	89.2 (1.5)	88.9 (-0.4)	95.4 (7.3)	87.7 (-8.9)	88.9 (-0.2)	93.6 (5.3)	82.4 (-12.0)	82.4 (0.0)
중유	74.0 (3.1)	72.2 (6.9)	71.6 (-0.9)	70.2 (-1.8)	75.4 (7.3)	66.2 (-10.5)	60.3 (-5.6)	56.5 (-6.3)	53.7 (-4.9)	57.6 (7.3)
프로판	610.4 (6.2)	625.0 (3.3)	635.0 (1.6)	635.0 -	625.0 (-1.6)	565.0 (-7.4)	495.0 (-4.8)	475.0 (-4.0)	495.0 (4.2)	525.0 (6.1)
부탄	607.5 (5.3)	620.0 (4.2)	630.0 (1.6)	630.0 -	615.0 (-2.4)	546.3 (-10.1)	475.0 (-3.1)	460.0 (-3.2)	485.0 (5.4)	520.0 (7.2)
납사	72.3 (4.5)	73.0 (4.2)	69.7 (-4.5)	69.0 (-0.9)	72.8 (5.5)	64.4 (-10.8)	61.7 (-4.8)	61.7 (-0.0)	58.5 (-5.3)	59.3 (1.4)

주 1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휘발유는 95RON, 경유는 0.001%, 중유는 고유황중유(180cst/3.5%), 프로판과 부탄은 CP 기준 값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한국무역협회

국내 에너지 가격

	2024년				2025년				2026년	
		10월	11월	12월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석유제품										
휘발유 (원/리터)	1 646.6 (0.2)	1 591.3 (-1.9)	1 628.3 (2.3)	1 653.6 (1.6)	1 709.3 (3.4)	1 680.6 (2.1)	1 663.2 (0.2)	1 718.1 (3.3)	1 740.2 (1.3)	1 704.4 (-2.1)
등유 (원/리터)	1 344.7 (-3.9)	1 310.1 (-1.7)	1 309.8 (-0.0)	1 312.6 (0.2)	1 327.9 (1.2)	1 312.3 (-2.4)	1 295.1 (0.3)	1 316.0 (1.6)	1 334.3 (1.4)	1 323.2 (-0.8)
경유 (원/리터)	1 502.6 (-3.6)	1 421.4 (-2.5)	1 461.0 (2.8)	1 497.2 (2.5)	1 563.6 (4.4)	1 553.2 (3.4)	1 536.8 (0.4)	1 619.1 (5.4)	1 650.5 (1.9)	1 600.1 (-3.1)
중유 (원/리터)	938.4 (0.7)	917.0 (-0.6)	928.7 (1.3)	946.9 (2.0)	927.9 (-2.0)	901.9 (-3.9)	871.2 (0.8)	855.3 (-1.8)	873.2 (2.1)	- -
프로판 (원/kg)	2 446.1 (3.1)	2 474.7 (-0.0)	2 477.1 (0.1)	2 521.6 (1.8)	2 522.4 (0.0)	2 501.3 (2.3)	2 445.6 (0.1)	2 442.6 (-0.1)	2 445.0 (0.1)	2 447.3 (0.1)
부탄 (원/리터)	995.2 (3.9)	1 016.9 (-0.0)	1 029.9 (1.3)	1 058.3 (2.8)	1 059.0 (0.1)	1 044.2 (4.9)	999.1 (-0.1)	998.3 (-0.1)	998.1 (-0.0)	998.2 (0.0)
도시가스 (원/MJ)										
주택용	21.4 (4.9)	22.3 -	22.3 -	22.3 -	22.3 -	22.3 (4.4)	22.4 -	22.4 -	22.4 -	22.4 -
일반용(1)	21.0 (4.6)	21.8 -	21.8 -	21.8 -	21.8 -	21.8 (3.9)	21.9 -	21.9 -	21.9 -	21.9 -
업무난방용	23.6 (-9.1)	23.8 (-1.7)	23.5 (-1.3)	24.5 (4.1)	24.0 (-2.1)	22.2 (-6.1)	21.2 (-4.4)	20.1 (-5.2)	20.3 (1.3)	20.8 (2.1)
산업용	20.8 (-10.6)	21.0 (-2.0)	20.7 (-1.4)	21.7 (4.7)	21.2 (-2.4)	19.2 (-7.7)	18.2 (-5.1)	17.1 (-6.0)	17.3 (1.5)	17.7 (2.5)
열 (원/Mcal)										
주택용	106.9 (11.3)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5.0)	112.3 -	112.3 -	112.3 -	112.3 -
업무용	138.8 (11.3)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5.0)	145.8 -	145.8 -	145.8 -	145.8 -
공공용	121.3 (11.3)	127.3 -	127.3 -	127.3 -	127.3 -	127.3 (5.0)	127.3 -	127.3 -	127.3 -	127.3 -

주 :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서울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내 전력 및 REC 가격

	2024년				2025년				2026년	
		10월	11월	12월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기 (원/kWh)										
주택용	174.0 (1.6)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일반용	111.1 (2.5)	91.9 -	119.0 (29.5)	119.0 -	119.0 -	111.1 -	91.9 -	119.0 (29.5)	119.0 -	119.0 -
산업용	149.6 (13.8)	144.8 (13.2)	174.8 (20.7)	174.8 -	174.8 -	162.3 (8.5)	144.8 -	174.8 (20.7)	174.8 -	174.8 -
기후환경요금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연료비조정요금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발전 연료비단가 (원/kWh)										
유류	342.7 (3.8)	332.8 (-4.5)	307.0 (-7.8)	307.7 (0.2)	307.8 (0.0)	319.1 (-6.9)	337.1 (-1.6)	342.1 (1.5)	341.6 (-0.2)	341.0 (-0.2)
LNG	141.1 (-21.6)	136.8 (-3.8)	135.5 (-1.0)	141.3 (4.3)	138.6 (-1.9)	124.2 (-12.0)	115.5 (-4.2)	110.1 (-4.7)	110.1 (0.0)	117.7 (6.9)
무연탄	83.9 (-10.1)	85.9 (-4.8)	84.7 (-1.4)	67.2 (-20.7)	67.5 (0.5)	73.4 (-12.5)	96.2 (33.6)	54.7 (-43.1)	55.8 (2.0)	66.9 (19.9)
유연탄	76.2 (-24.6)	75.2 -	76.4 (1.7)	80.4 (5.2)	76.4 (-5.0)	73.7 (-3.3)	65.1 (-2.7)	65.9 (1.2)	66.0 (0.2)	70.7 (7.2)
원자력	6.41 (0.6)	6.40 (-0.2)	6.40 (-0.0)	6.38 (-0.3)	6.38 -	6.39 (-0.3)	6.42 (0.2)	6.42 (0.1)	6.43 (0.1)	6.43 (0.1)
SMP (원/kWh)										
SMP육지	129.4 (-23.2)	117.2 (-15.6)	112.3 (-4.2)	116.6 (3.8)	117.1 (0.5)	114.8 (-11.8)	101.5 (-10.1)	94.8 (-6.6)	90.4 (-4.6)	103.5 (14.5)
SMP제주	134.9 (-24.5)	120.6 (-16.9)	108.7 (-9.9)	118.2 (8.7)	118.9 (0.6)	114.4 (-15.3)	101.2 (-11.3)	95.8 (-5.3)	91.0 (-5.0)	102.9 (13.1)
SMP통합	129.5 (-23.2)	117.2 (-15.6)	112.2 (-4.3)	116.6 (3.9)	117.1 (0.5)	114.8 (-11.8)	101.5 (-10.1)	94.8 (-6.6)	90.4 (-4.6)	103.5 (14.5)
REC										
REC 평균가격 (천원/REC)	76.2 (4.7)	76.9 (-3.0)	75.0 (-2.4)	67.2 (-10.5)	69.8 (3.9)	71.9 (-5.6)	72.3 (0.5)	72.1 (-0.2)	72.3 (0.2)	71.7 (-0.9)
REC 거래량 (천 REC)	1 143.5 (-5.1)	1 043.8 (-33.9)	936.4 (-10.3)	816.9 (-12.8)	803.4 (-1.7)	1 566.2 (37.0)	1 646.6 (-23.0)	1 651.9 (0.3)	1 918.4 (16.1)	1 581.2 (-17.6)

주 1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전기요금은 주택용(고압, 201~400kWh), 일반용(갑 I, 저압), 산업용(을), 고압B, 선택 II 중간부하) 기준

3 연간 및 월간 SMP는 시간대별 SMP를 시간대별 전력수요예측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이고, 연초 누계(ex. 1~N월) SMP는 월간 SMP를 단순평균한 값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일차에너지 소비

	2022년	2023년	2024년p			2025년p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석탄 (백만 톤)	124.3 (-3.7)	120.5 (-3.1)	112.9 (-6.3)	8.5 (-6.4)	8.2 (-15.6)	10.1 (-6.6)	111.3 (-1.5)	9.1 (6.6)	8.9 (8.4)	10.6 (4.7)
- 원료탄 제외	100.7 (-2.7)	96.4 (-4.3)	90.5 (-6.1)	6.5 (-7.9)	6.4 (-16.4)	8.2 (-6.7)	88.3 (-2.4)	7.1 (8.5)	7.0 (8.9)	8.5 (4.8)
석유 (백만 bbl)	814.5 (-1.9)	779.7 (-4.3)	803.1 (3.0)	70.9 (9.7)	64.7 (-2.5)	68.6 (-0.6)	780.5 (-2.8)	66.3 (-6.5)	61.6 (-4.9)	66.9 (-2.6)
가스 (백만 toe)	59.4 (-0.3)	57.1 (-3.8)	61.0 (6.9)	4.0 (5.3)	4.8 (0.5)	6.6 (4.4)	60.4 (-1.0)	4.0 (0.5)	5.0 (4.2)	6.1 (-7.7)
- 천연가스 (백만 톤)	45.4 (0.1)	43.5 (-4.2)	46.4 (6.7)	3.1 (4.8)	3.8 (-1.9)	5.2 (4.8)	46.1 (-0.7)	3.1 (1.0)	3.9 (4.0)	5.0 (-4.0)
- 도시가스 (십억 m3)	-0.1 (-123.7)	0.2 (-371.6)	0.3 (56.3)	-0.0 (-24.7)	-0.2 (-43.5)	-0.3 (15.6)	0.1 (-71.7)	-0.1 (37.2)	-0.1 (-3.0)	-0.5 (83.6)
원자력 (TWh)	176.1 (11.4)	180.5 (2.5)	188.8 (4.6)	17.1 (12.8)	16.1 (2.7)	16.7 (2.5)	184.7 (-2.2)	13.8 (-19.5)	13.1 (-19.1)	15.4 (-7.6)
신재생·기타 (백만 toe)	16.7 (10.9)	18.4 (10.4)	19.6 (6.5)	1.5 (-3.4)	1.4 (0.0)	1.7 (16.9)	20.9 (6.8)	1.5 (2.6)	1.7 (16.3)	1.8 (5.0)
총에너지 (백만 toe)	309.9 (0.7)	304.9 (-1.6)	310.6 (1.8)	25.0 (3.8)	24.3 (-5.1)	28.2 (-0.2)	305.1 (-1.8)	23.9 (-4.2)	24.0 (-1.4)	27.4 (-2.7)

주: p는 잠정치, ()는 전년/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석유는 원유 및 정제원료와 석유제품 총에너지 소비를 합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일차에너지 소비 비중

(단위 %)

	2022년	2023년	2024년p			2025년p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석탄	24.2	23.9	22.0	20.8	20.4	21.6	22.1	23.1	22.4	23.3
석유	39.1	38.7	39.1	42.7	39.8	36.6	38.3	41.5	38.1	36.2
가스	19.2	18.7	19.7	16.1	19.7	23.3	19.8	16.9	20.9	22.1
- 천연가스	19.2	18.7	19.6	16.3	20.4	24.2	19.8	17.2	21.5	23.9
- 도시가스	-0.0	0.1	0.1	-0.2	-0.6	-1.0	0.0	-0.3	-0.6	-1.8
원자력	12.1	12.6	12.9	14.6	14.1	12.6	12.9	12.2	11.6	12.0
신재생·기타	5.4	6.0	6.3	5.8	5.9	5.9	6.9	6.2	6.9	6.4
총에너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는 잠정치, 석유는 원유 및 정제원료와 석유제품의 일차에너지 소비를 합한 값, 가스는 천연가스와 도시가스의 일차에너지 소비를 합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최종 소비

(단위: 백만 to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p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산업	129.6 (-3.0)	126.5 (-2.4)	130.7 (3.4)	11.1 (7.3)	10.7 (0.5)	11.0 (0.8)	127.8 (-2.3)	10.4 (-6.2)	10.4 (-2.7)	10.6 (-3.6)
수송	36.3 (-0.9)	35.3 (-2.7)	35.0 (-1.0)	3.3 (14.0)	2.7 (-10.7)	3.0 (-0.1)	34.1 (-2.6)	3.0 (-7.3)	2.5 (-7.8)	3.0 (1.1)
가정	23.6 (2.8)	22.3 (-5.3)	22.1 (-1.2)	1.3 (1.4)	1.7 (-11.0)	2.9 (-4.2)	22.9 (3.6)	1.2 (-3.4)	1.9 (7.4)	2.9 (-1.1)
상업·공공	24.1 (4.0)	24.4 (1.3)	24.6 (0.9)	1.8 (4.4)	1.8 (-2.8)	2.3 (-0.6)	25.2 (2.3)	1.8 (-1.4)	1.9 (3.8)	2.3 (1.2)
최종 소비	213.5 (-1.3)	208.5 (-2.3)	212.3 (1.8)	17.4 (7.7)	16.9 (-3.0)	19.3 (-0.3)	209.9 (-1.2)	16.4 (-5.7)	16.6 (-1.8)	18.9 (-1.9)
석탄 (백만 톤)	48.3 (-10.2)	48.4 (0.2)	47.5 (-2.0)	4.1 (0.0)	3.8 (-10.0)	4.2 (4.1)	44.2 (-6.9)	3.8 (-7.7)	3.7 (-1.8)	3.9 (-9.0)
석유제품 (백만 bbl)	798.9 (-1.3)	766.2 (-4.1)	796.4 (3.9)	70.8 (12.3)	64.6 (-0.1)	66.9 (-0.6)	780.7 (-2.0)	66.1 (-6.8)	61.6 (-4.6)	65.9 (-1.5)
- 비에너지유 제외	345.8 (-1.4)	338.5 (-2.1)	332.1 (-1.9)	31.2 (14.1)	26.7 (-8.9)	30.7 (-1.3)	318.5 (-4.1)	27.5 (-12.0)	24.4 (-8.7)	30.4 (-1.1)
전기 (TWh)	534.3 (2.7)	532.7 (-0.3)	536.6 (0.7)	43.0 (5.9)	40.9 (-2.2)	44.4 (-1.7)	536.7 (0.0)	41.1 (-4.4)	41.1 (0.6)	44.3 (-0.2)
천연가스 (백만 톤)	1.6 (1.0)	2.2 (33.2)	3.3 (52.4)	0.3 (42.0)	0.3 (74.4)	0.3 (39.6)	3.7 (12.4)	0.3 (18.5)	0.3 (-4.7)	0.4 (19.0)
도시가스 (십억 m³)	23.4 (2.9)	21.7 (-7.3)	21.3 (-1.8)	1.1 (-5.5)	1.7 (-11.8)	2.8 (-3.0)	21.8 (2.3)	1.1 (-2.1)	1.8 (7.8)	2.7 (-1.6)
열·신재생·기타 (천 toe)	10.2 (3.7)	10.2 (-0.3)	10.1 (-1.2)	0.7 (0.9)	0.8 (-5.4)	1.1 (-3.7)	10.5 (3.9)	0.7 (-1.9)	0.8 (1.8)	1.1 (0.0)

주: p는 잠정치,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비에너지유는 원료용 프로판, 부탄 소비를 포함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최종 소비 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p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산업	60.7	60.7	61.6	63.8	63.2	57.2	60.9	63.4	62.6	56.2
수송	17.0	16.9	16.5	18.6	15.8	15.6	16.2	18.3	14.8	16.1
가정	11.0	10.7	10.4	7.3	10.3	15.2	10.9	7.4	11.3	15.3
상업·공공	11.3	11.7	11.6	10.3	10.7	12.0	12.0	10.8	11.3	12.4
석탄	14.4	14.9	14.2	15.0	14.1	14.0	13.6	14.8	14.2	13.1
석유제품	47.1	46.3	47.0	51.3	47.9	43.8	46.6	50.3	46.2	43.6
- 비에너지유 제외	21.0	21.0	20.2	23.2	20.2	20.5	19.6	21.7	18.8	20.7
전기	21.5	22.0	21.7	21.2	20.8	19.8	22.0	21.5	21.3	20.1
천연가스	1.0	1.4	2.0	1.9	2.4	2.3	2.3	2.4	2.3	2.8
도시가스	11.2	10.6	10.2	6.6	10.0	14.7	10.6	6.9	11.0	14.7
열·신재생·기타	4.8	4.9	4.7	3.9	4.7	5.6	5.0	4.1	4.9	5.7

주: p는 잠정치, 비에너지유는 원료용 프로판, 부탄 소비를 포함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